

2. 죄가 무엇이며 왜 생겼는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무도 속일 수 없도록, 구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이런 중대한 일을 확인하는 것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해 나아가도록 해 볼 것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 확인 작업에 동참하시고 예수를 확실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자체를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인 과정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대로 죄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롬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무엇입니까? 왜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들으면 참 기분 나쁜 소리이지요. 기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도덕적 타락성을 유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물마시듯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제 살펴 보겠습니다만,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런 원죄설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죄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문사 발행 1984년판 기독교 대백과사전 12권 355,356쪽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원죄가 인류의 보편적 범죄적 성향과 혼동되어 왔으며, 죄의 보편성에 대한 가정적 원인이 죄의 의지가 발현된 현상으로 오인되어 왔기 때문에 생겨났다. 하지만 원죄는 사실(fact)이 아니라 추론이며 사실에 대한 가정적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원죄는 관찰된 사실의 본성으로는 인식되지 않으며 종종 억압적인 교리로 여겨지고 있다..... 원죄의 교리는 바울이 제시한 우연한 유추를 제외하고는 성서에 아무런 근거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아담과 최초의 타락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그가 유대 사상에서 끌어낸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기독교 대백과사전, 12:355). ‘심리학과 생물학은 인간 본성이 죄의 행위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는 관념 혹은 그러한 교란이 육체적 유전에 의해 널리 퍼질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설라이에르마허의 시대부터 죄의 보편성과 전파를 개인이 도덕적 의식을 갖게 된 뒤 사회적 환경이 끼친 영향력의 견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상게서, 12:356).”

이런 설명은 성경이 말하는 죄 문제를 도덕론에 입각하여 사회적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고, 결국은 원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고, 세상에 죄가 하도 보편적이니까 아마도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가정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원죄를 아담으로부터 도덕적 타락성을 유전 받은 것이라는 설명도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죄 문제를 보기 때문에 생겨난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그 원인을 두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 문제는 생명 문제이며 존재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로서 그 존재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가르쳐줍니다. 죄는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지요. 죄가 어디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을까요?

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지요. 도덕적인 죄, 정치적인 죄, 종교적인 죄, 상업적인 것 등등.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도덕적인 죄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인 죄가 왜 보편적인 것이냐라는 문제를 존재와 생명 문제로 가르칩니다.

죄 문제가 존재와 생명 문제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지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부터 알아봐야 하겠지요. 어디서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세상으로 들여왔는지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여자가 그것을 먹고 그의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인 아담이 그것을 먹는 일로 인하여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은 무엇이며 뱀이 그런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죄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죄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와서 사람 대신에 죽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 문제를 알아야 예수 믿는 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는 세상 밖에서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운반책이 뱀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가 하와이고요. 그러니까 뱀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 존재를 알면 죄의 배후를 알 수 있겠지요.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하여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잠깐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시103:20~22) 이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리는 영들로 창조되었습니다.(히1:14) 그들 중에 한 천사는 아마도 천사들의 지도자로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묘사된 사실을 보면 그는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겔28:12~15)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화려하게 단장한 천사입니다. 덮는 그룹이라는 말은 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의 한 무리를 뜻하는 말이지만, 덮는 그룹은 그룹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시립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일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 무리의 지휘 천사입니다.

시8:5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

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낮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사람들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히1:2,3“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나 사람이나 그 외모적 형상은 다 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다니엘이 계시 중에 인자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단7:13,14) 그분은 그 모양이 인자 같았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 같이 생긴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천사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러나 사람보다 좀 더 낮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덮는 그룹 천사는 계명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사야 14:12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불렀거든요. 히브리어로 “헬렐”인데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치페르”라고 했습니다. 이 철자를 그대로 영어로 옮기고 발음을 하니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천사 중에 덮는 그룹으로 창조된 지극히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한 천사였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와 별로 다르게 생기지 않은 한 분이 역시 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렘23:18에 보면 여호와 회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회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석할 자격이 없겠지요. 그런데 루시퍼와 외모가 거의 같은 한 분이 거기 참석하지 않습니까. 루시퍼는 슬며시 자기도 그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자기와 형상이 같은 분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이시고 루시퍼는 아무리 용모가 비슷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지요. 아마도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분과 겨루어보자는 생각이 싹트고 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14을 읽으면 이런 이해는 가능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의 욕망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험할 때 한 마귀의 말을 보면 루시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4:8,9)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일으킨 싸움의 원인입니다. 루시퍼는 용모가 자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에게 왜 루시퍼 자신은 여호와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루시퍼와 같은 용모를 가진 당신은 참여하는지 따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며 루시퍼는 그분이 친히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호와 회의, 곧 스스로 계신 분들의 회의에 참

석할 수 없다고 잘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 하려는 대신에 도전하고 전쟁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루시퍼는 미가엘에 패배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루시퍼는 창조주께서 있도록 지정한 자리와 지위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유6) 루시퍼는 이제 사단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말은 쫓겨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존재와 생명을 스스로 거절하고 루시퍼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자기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한 장소입니다. 그는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다 할 때까지 루시퍼는 사단과 마귀로 존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루시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거절했으니 당연히 그의 존재를 회수되고 존재가 회수되는 방법이 생명을 반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여 루시퍼는 사망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창조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잘 설명해줍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요. 그 귀신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외칩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마8:29) 루시퍼와 그의 동료들은 때가 이르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계시록도 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감을 이라 하더라.”(계12:12)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안다고 했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히2:14) 분명히 마귀를 없이하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창조주를 대적하여 사망이 된 루시퍼가 그를 추종하는 다른 천사들, 곧 하늘 천사의 1/3이나 되는 추종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 온 것입니다. 그가 에덴동산에서 뱀을 매개체로 하여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에게도 자기와 같은 일을 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시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방법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마치 최면이라고 걸린 듯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만 먹어버렸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루시퍼의 편에 함께 서게 되었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속하게 되었으니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존재와 생명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행복한 중에 존재하도록

창조한 것을 선악과를 먹으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망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들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긴 것입니다. 루시퍼와 똑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말라고 했는데 바로 아담이 그렇게 한 사람의 1호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롬14:20)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참 생명의 씨를 그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곧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이미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되었습니다.(히 9:27)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아무리 발명을 잘 해도,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죽는 때를 유예해 주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된 것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가르칩니다.(고전15:22)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을 썩어질 씨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벧전1:23) 애청자들이나 저나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따 썩어질 씨로 태어난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가르칩니다. 원죄라는 말을 한다면 도덕적 타락은 유전 받은 것이라고 하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가 바로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 사망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망이 된 사람에게도 유예기간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때가 이르면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구원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상에 도덕적인 죄들, 모든 종류의 죄들은 다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썩는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도덕적 부패라는 말을 쓰지요. 사람이 참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이 부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

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8:21)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 중에 사람도 썩어져가는 삶을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도덕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이 모든 것은 이 썩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방부제를 치고 냄새를 줄이기 위하여 방취제를 치는 효과밖에 안 됩니다. 죽었기 때문이 근본적으로 썩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썩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성경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무제를 확실히 알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처리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으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깨달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우리들로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 생명으로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